

“국민적 신뢰 회복 원년”

원자력산업회의, ‘2018 신년인사회’...새로운 시작 다짐

원자력계가 새해를 맞아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회장 이관섭)는 12일 서울 팜라스 강남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8 원자력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관섭 원자력산업회의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느껴졌다”며 “지난해 원전 가동률은 70%가 넘는 수준이며 올해도 가동률이 좋지만은 않는 상황이라 특단의 노력이 없다면 이용률을 높이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우러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원전을 만들고, 원자력계가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한수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우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새해 덕담을 전했다.

이재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에너지 분야의 대변력이 있었지만, 원전은 주식이고 신재생에너지는 간식이라 생각한다”며 “간헐성 에너지로 주식인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 수정·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한 해는 원자력계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등을 성찰하는 시간이었고, 이를 통해 ‘원전을 지속할 이유가 있는가, 위험·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가’ 등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국민의 인식 속에서 패배한 위험을 철저한 전문성과 과학적 준비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힘써 말했다.

이우 “원전의 위험 여부가 아닌 원자력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올 한 해를 국민적 신뢰회복의 원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8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2018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이관섭 원자력산업회의 회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 학창시절에는 정전·단전이 잦아 양초를 사다 놓았던 경험이 있는데, 요즘은 전기의 소중함을 잠시 잊고 사는 것 같다”며 “국민들이 전력수급에서 원전의 역할을 인지한다면 원자력계가 지난해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인호 산업부 차관과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의 신년 인사가 이어졌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올 한 해는 신고리 4호기와 UAE 바라카 1호기 준공 등 원자력계의 좋은 소식이 기대된다”며 “에너지전환 정책이 원전 생태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무술년은 원자력의 R&D 사업을 통해 안전·타 분야와의 융합 등 종합적인 기술역량을 확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또 원자력계가 국민, 타 산업, 외국 등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jz@

‘탄소제로’ 평창 동계올림픽 만든다

기후변화센터, 대회 기간 내 ‘탄소상쇄기금 모금 캠페인’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가 창립10주년을 맞이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상쇄기금 모금 캠페인’을 벌인다.

우리나라는 탄소 없는 동계올림픽을 만들기 위해 대회 기간 중 발생할 전체 온실가스 약 159만톤을 전량 감축·상쇄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이중 선수·관중 등에 의해 발생이 예상되는 50만톤의 온실가스를 자신이 상쇄할 수 있도록 해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탄소배출을 책임지는 대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탄소상쇄기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한다.

50만톤의 온실가스는 동계올림픽 기간 중 수

천 명의 사람들이 항공기,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편으로 이동하고, 숙박 시설에서 전기, 수도, 난방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다.

이번 캠페인은 올림픽 역사상 처음 시도되는 ‘저탄소’ 올림픽을 한국이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지키고, 또한 한국이 유치한 세계 최대 겨울 스포츠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마련됐다.

‘탄소상쇄기금’은 대회 준비와 운영 기간 중 발생한 온실가스를 금액으로 환산해 기부한 모금액으로 조성되며, 모금 캠페인 종료 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탄소배출권(CDM-CER)을 구매해 ‘자발적 취소’를 통해 평창대회 탄소상쇄에

활용될 계획이다.

개별모금액은 탄소상쇄기금 모금 전용 웹페이지(www.pyeongchang2018-carbonfund.com)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가령 서울에서 평창으로 이동할 때 이산화탄소 0.040t이 발생하는데, 유럽 탄소배출권(EU) 거래금액 평균 가격(당약 1만원)을 적용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모금액이 약 400원이다.

‘탄소상쇄기금 모금 캠페인’은 사전 온라인 모금과 현장 부스 모금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1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국가·기관·단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23일부터 2월 25일까지는 누구나 온라인 및 현장 납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정형석 기자 azar76@

수출형원전 신고리 3호기, 운전 첫 해 무정지 달성

유럽 설계인증 받은 3세대 원전 APR-1400 안정성 입증

수출형원전인 신고리 3호기가 첫 연료주기 동안 무사고운전을 달성하며 안정성을 증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은 신고리 3호기가 2016년 12월 준공 이후 389일 동안 단 한 번의 정지 없이 안전운전을 달성하고 첫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리 3호기는 3세대 원전

다. 설계수명은 기존 40년 대비 50% 향상된 60년이며, UAE에 수출한 원전의 참조 모델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새롭게 개발된 원전이 안정화되기까지 불시정지 등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고리 3호기가 무고장 안전운전을 달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과 운영능력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고, 원전수출의 추가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됐다”며 “신고리3호기의 무고장 안전운전이라는 우수한 성과에 자

만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한수원 직원들은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신형 노형의 최초 호기가 첫 연료주기 동안 무사고로 운전한 것은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는 신규 노형의 높은 안정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노형인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가 지체되고 있는데, 신고리 3호기를 통해 안정성이 입증된 만큼 조기에 운영허가가 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재학 기자

신개념 치료기술 개발 복합연구센터 4월 완공

원자력의학원, 국내 신약개발지원 체계 확립 계획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신약 개발지원 체계와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개발을 위한 복합연구센터가 4월 완공된다.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따르면 오는 4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연면적 1만4455㎡)의 복합연구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12월까지 GMP(우수 의약품제조관리) 방사성의약품 생산시설, GLP(우수 비임상시험관리) 방사성동위원소기반 비임상평가시설, GCP(우수 임상시험관리) 마이크로도즈 임상시험시설과 초감도가 속질량분석기 등 연구장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체하고 원자력의학원이 주관하는 이사업의

총 사업비는 941억8000만원에 달한다.

원자력의학원은 이 사업을 통해 국내 신약개발지원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제약 회사가 한 개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약 15~20년이 소요되며, 총 13억달러(약 1조3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원자력의학원 관계자는 신약개발 과정에서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성영상 기술을 이용한 신약평가방법을 도입하면 신약개발 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원자력의학원은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 개발 기반을 확립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포함한 사회

적비용은 약 6조원으로 추산된다. 암 치료방법에는 수술, 화학적치료, 방사선치료와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이용한 치료 등이 있다.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이용한 치료는 현실적으로 수술 또는 화학적 치료가 어렵거나 난치성 암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주로 이용된다.

원자력의학원에 따르면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이용한 표적치료는 암환자의 완치 또는 생존기간 연장을 기대할 수 있고, 치료효과를 동시에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높은 가격으로 인해 국내 개발이 필요하다.

원자력의학원은 표적화 연구와 각종 난치성 질환의 치료제가 개발될 경우 의료비용을 매년 약 2000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재학 기자

원안위, 신월성 2호기 시험오류 부품 확인

전 원전 대상 유사사례 점검

원안위는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에서 일부 시험오류 부품을 확인하고, 전 원전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경민)는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 중 주중기대기방출밸브(MSADV) 플러그에 대한 모의후열처리 누락과 몸체 원소재에 대한 충격시험 오류를 확인해 모든 원전에 대한 유사 오류 여부를 확대·점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MSADV는 2차축의 터빈이 정지되는 경우 증기발생기에 갇혀 있는 증기를 대기로 배출시키는 보조적 압력방출기기를 말한다.

원안위에 따르면 C사에서 제작한 신월성 2호기 MSADV 플러그의 용접부에 대한 모의후열처리가 누락됐다.

모의후열처리는 부품제작사가 제작 당시 실시하며, 그 기록을 한 수원에 부품과 함께 납품한다. 이번 사안은 한수원이 부품 인수과정에서 품질확인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유사 오류 여부를 확대해 점검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문제가 된 C사가 제작한 원전 내 다른 밸브 플러그에 대해서도 오류 여부를 점검 중이다.

조재학 기자



미래의 변화를 꿈꾸는 초우량기업

한광전기공업(주)

고객감동의 미(美)를 만들어갑니다.

Hankwang
고객의 감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기업, 한광전기공업(주)
한광전기공업(주)

謹賀新年
2018

영구자석형 전자개폐기 내장 (Permanent Magnetic Contactor)

- 영구자석과 전자력을 함께 사용하여 무전동으로 인한 점정부 보호와 수명 3배 증가
- 1회 전류 투입만으로 투입상태 유지 (약 0.02초 동안만 전류인가)
- 소모/대기전력 95% 이상 감소와 코일부 발열률 0%
- 순간정전(Sag, Voltage Drop) 방지 및 100msec 이상 지연석방
- 자료가 분해되어 어떠한 실비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영구자석력은 100년간 0.3% 감소

한광전기공업(주)
전국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문의처: 본사 영업팀 (Tel. 02-462-3731)
모집지역: 전국 주요도시

본사: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44 우영테크노센터 402호 Tel. 02-462-3731 Fax. 02-463-8350
공장: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다림로 57번길 48 Tel. 031-762-7500 Fax. 031-764-0302